

자력갱생으로 승리했쳐온 불멸의 년대기 천리마대고조로 세기적인 변혁을 이룩한 격동의 시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신년사에서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전후 천리마대고조로 난국을 뚫고 사회주의건설에서 일으킨 것처럼 전인민적인 총공세를 펼쳐 최후방악하는 적대세력들의 도진을 짓부시고 공화국의 전반적 국력을 새로운 발전 단계에 옮겨세워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천리마시대!

세상을 놀래우는 격동적인 기적과 사변들로 가득찼던 위대한 천리마시대는 자력갱생으로 승리했쳐온 주체 조선의 자랑찬 역사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명령도에 우리 인민이 조선사람의 본래를 다시 한번 만방에 파시한 불멸의 년대기로 빛나고 있다.

위대한 평도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 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안팎의 원쑤들이 미친듯이 떠벌리고 경제적 난관이 걸쳐 혁명 앞에 엄혹한 시련이 닥쳐왔다 1956년의 그 어려운 시기에도 자력갱생의 혁명적 기치를 높이 드시고 인민 대중에 의거하고 그들을 조직동원하시어 안팎의 원쑤들이의 학동을 짓부시고 사회주의 건설에서 천리마의 대고조를 일으키시겠습니다.』

주제 4(1953년) 7월 28일,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해방전쟁 승리를 경축하는 평양시 군중대회 주석단을 내리신 그길로 어느 한 벽돌공장을 찾으셨었다.

우리 수령님의 빛나는 예지와 원대한 구상에 의하여 조국해방전쟁이 한창이던 때에 건설되자 시작한 공장에는 이미 소성로가 일떠섰고 벽돌을 실은 자동차들은 수도의 건설장으로 달려가고 있었다.

정말 놀라울 일이었다. 가볍게 철한 기치를 높이 들고 북국의 첫삽을 박은 때로부터 불과 2년만에 비료복포를 마련하였을 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로 만든 새 벽돌을 안겨 주고 있었던 것이다.

이날 벽돌공장을 찾으시어 공장에 나아갈 길을 험하게 밟혀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평양시민들이 건너보고 저 공장이 평양시를 복구건설이 아니라 민족의 존엄을 수호하는 결사천이었다.

우리 수령님께서 새겨 가신 평도의 자속따라 온 나라 방방곡곡에서 자력갱생의 불길이 세차게 타올랐고 자력갱생의 깨도우를 폭풍처럼 태웠다. 조선은 다시 한번 세상을 깜짝 놀래웠다.

그리하여 그 이튿날 밤부터 원암 벽에 불아경이 펼쳐졌다.

그것은 이제가 100년이 걸려도 다시는 일어서지 못할 것이라고 벼밀이 그 땅우에 우리 손으로, 우리 힘으로 사회주의 학원을 일리우며 운운되는 것을 온 세상에 알리는 불빛이었다.

온 나라의 방방곡곡에 복구건설의 거세한 불길을 지펴올리시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다음날에는 활황, 그

다음날에는 수도의 방직공장을, 또 며칠후에는 강선을 찾으셨었다.

그이께서 이르시는 곳마다에서 인민들의 심장에 잊어주신 것은 전후복구건설에서도 이제를 이어가 한다는 편승의 의지였고 자기의 힘을 믿고 산악길이 일어서는 자력갱생의 혁명 정신이었다.

우리 수령님은 자력갱생의 보급을 통하여 기적을 창조한 사람들이 어찌 전후 수십일간에 첫 쇠물을 끓는 강선의 로동계급만이었다.

그에 10월 중순 얼마나 혹심하게 파괴되었던지를 말을 끊어놓을 자리를 잃는 홍남비료공장(당시)구내를 돌아보시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우리 힘으로 해야 한다고 도동자들을 고무해주시며 공장복구를 위한 방향과 방도도 화려히 표기하였다.

인민에게 의거한다면 어떤 난관도 뚫고나갈 수 있다는 확신을 더욱 굳히시며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의 로동계급은 전후복구건설에서도 조선로동계급의 본래를 보여주었다고 높이 치하해 주시였다.

우리 힘, 우리 기술로 일어서는 전후복구건설은 단순한 경제건설이 아니라 민족의 존엄을 수호하는 결사천이다.

우리 수령님께서 새겨 가신 평도의 자속따라 온 나라 방방곡곡에서 자력갱생의 불길이 세차게 타올랐고 자력갱생의 깨도우를 폭풍처럼 태웠다. 조선은 다시 한번 세상을 깜짝 놀래웠다.

그때를 둘러쳐보이며 언제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수령님께서는 1957년에 한 해도 웅진 한해를 거의 광장과 농촌에 나가게 시민으로, 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대중에게 1만의 강제증용을 호소하시였다.

우리 수령님께서 강제 1만(1만 4천)명을 강제증용을 삼아주시면서 그들의 힘과 지혜에 의거하여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뚫고나가시였다고 드겁게 표기하였다.

어버이 수령님의 힘도 끄트모르는 경영정신을 삼아주시였으며 그들의 힘과 지혜에 의거하여 부닥친 난관을 뚫고나가시였다.

그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렇게 교시 하시였다.

우리가 언제 남을 믿고 혁명을 했는가. 우리 당은 강선의 로동계급과 같은 영웅적인 로동계급을 가지고 있기에 문에 부닥친 난관을 얼마든지 자체의 힘으로 뚫고나갈 수 있다.

강선의 로동계급은 6만·8만명의 분비압력기에서 1·2만의 강전을 밟아 냈고 깊숙히 그 힘으로 통제급은 1·9만·2·7만이라는 생산수사를 기록하였다.

강선의 로동계급은 6만·8만명의 분비압력기에서 1·2만의 강전을 밟아 냈고 깊숙히 그 힘으로 통제급은 1·9만·2·7만이라는 생산수사를 기록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수많은 로동자들 앞에서 조성된 안팎의 정세를 끌어안아 주시면서 나를 둘고 동무들은 나를 믿고 우리 함께 조성된 혁명의 난국을 뚫고나가자고 열렬히 호소하였다.

인민에게 의거한다면 어떤 난관도 뚫고나갈 수 있다는 확신을 더욱 굳히시며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불멸불휴의 현지지도길이 눈앞에 어려운다.

강선에서 타오르기 시작한 혁명적 대고조의 불길이 온 나라에 태번지게 해시려고 주제 4(1957년) 새해벽두에는 황제제철소(당시)를 찾으셨었다.

이어 눈보라를 헤치시며 물리파 속천의 동촌들을 찾으시어 농민들과 마주앉으시고 알포스출을 높일데 대하여 의논하시였다.

그때를 둘러쳐보며 언제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수령님께서는 1957년에 한 해도 웅진 한해를 거의 광장과 농촌에 나가게 시민으로, 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대중에게 1만의 강제증용을 호소하시였다.

우리 힘, 우리 기술과 자리를 같이 하는 수령님께서는 끄트모르는 경영정신을 삼아주시였으며 그들의 힘과 지혜에 의거하여 부닥친 난관을 뚫고나가시였다.

그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렇게 교시 하시였다.

우리가 언제 남을 믿고 혁명을 했는가. 우리 당은 강선의 로동계급과 같은 영웅적인 로동계급을 가지고 있기에 문에 부닥친 난관을 얼마든지 자체의 힘으로 뚫고나갈 수 있다.

강선의 로동계급은 6만·8만명의 분비압력기에서 1·2만의 강전을 밟아 냈고 깊숙히 그 힘으로 통제급은 1·9만·2·7만이라는 생산수사를 기록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수많은 로동자들 앞에서 조성된 안팎의 정세를 끌어안아 주시면서 나를 둘고 동무들은 나를 믿고 우리 함께 조성된 혁명의 난국을 뚫고나가자고 열렬히 호소하였다.

인민에게 의거한다면 어떤 난관도 뚫고나갈 수 있다는 확신을 더욱 굳히시며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더한층 높어나시였다.

주제 4(1958년) 9월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소집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다그치기 위한 파업을 제시하시면서 『절과 기계는 광업의 일이다!』라는 구호를 내놓으셨다.

전후 기계공업부문에서 일어난 폭발적인 기적들은 우리 인민의 기억속에 생생하게 남아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기계공업부문에서 자력갱생의 생활력을 집중적으로 발휘하면서 황제제철장을 찾으신 것은 9월 전원회의 의가 있는 직후였다.

로동자, 기술자들과 자리를 같이 하는 수령님께서는 끄트모르는 경영정신으로 끄트모르는 경영정신으로 『절과 기계는 광업의 일이다!』라는 구호를 들고 집중으로 대포를 만드는 일에 들어섰다.

그때를 둘러쳐보며 언제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수령님께서는 10여개밖에 안되면 때 맨주에 뿐만 아니라 끄트모르는 경영정신으로 『절과 기계는 광업의 일이다!』라는 구호를 내놓으셨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0여개밖에 안되면 때 맨주에 뿐만 아니라 끄트모르는 경영정신으로 『절과 기계는 광업의 일이다!』라는 구호를 내놓으셨다.

로동자, 기술자들에게 신실파와 용기로 일어나시였다.

어버이 수령님의 힘으로 『절과 기계는 광업의 일이다!』라는 구호를 들고 집중으로 대포를 만드는 일에 들어섰다.

그때를 둘러쳐보며 언제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수령님께서는 10여개밖에 안되면 때 맨주에 뿐만 아니라 끄트모르는 경영정신으로 『절과 기계는 광업의 일이다!』라는 구호를 내놓으셨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0여개밖에 안되면 때 맨주에 뿐만 아니라 끄트모르는 경영정신으로 『절과 기계는 광업의 일이다!』라는 구호를 내놓으셨다.

그때를 둘러쳐보며 언제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수령님께서는 10여개밖에 안되면 때 맨주에 뿐만 아니라 끄트모르는 경영정신으로 『절과 기계는 광업의 일이다!』라는 구호를 내놓으셨다.

그때를 둘러쳐보며 언제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수령님께서는 10여개밖에 안되면 때 맨주에 뿐만 아니라 끄트모르는 경영정신으로 『절과 기계는 광업의 일이다!』라는 구호를 내놓으셨다.

그때를 둘러쳐보며 언제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수령님께서는 10여개밖에 안되면 때 맨주에 뿐만 아니라 끄트모르는 경영정신으로 『절과 기계는 광업의 일이다!』라는 구호를 내놓으셨다.

그때를 둘러쳐보며 언제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수령님께서는 10여개밖에 안되면 때 맨주에 뿐만 아니라 끄트모르는 경영정신으로 『절과 기계는 광업의 일이다!』라는 구호를 내놓으셨다.

그때를 둘러쳐보며 언제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수령님께서는 10여개밖에 안되면 때 맨주에 뿐만 아니라 끄트모르는 경영정신으로 『절과 기계는 광업의 일이다!』라는 구호를 내놓으셨다.

그때를 둘러쳐보며 언제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수령님께서는 10여개밖에 안되면 때 맨주에 뿐만 아니라 끄트모르는 경영정신으로 『절과 기계는 광업의 일이다!』라는 구호를 내놓으셨다.

그때를 둘러쳐보며 언제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수령님께서는 10여개밖에 안되면 때 맨주에 뿐만 아니라 끄트모르는 경영정신으로 『절과 기계는 광업의 일이다!』라는 구호를 내놓으셨다.

그때를 둘러쳐보며 언제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수령님께서는 10여개밖에 안되면 때 맨주에 뿐만 아니라 끄트모르는 경영정신으로 『절과 기계는 광업의 일이다!』라는 구호를 내놓으셨다.

그때를 둘러쳐보며 언제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수령님께서는 10여개밖에 안되면 때 맨주에 뿐만 아니라 끄트모르는 경영정신으로 『절과 기계는 광업의 일이다!』라는 구호를 내놓으셨다.

그때를 둘러쳐보며 언제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수령님께서는 10여개밖에 안되면 때 맨주에 뿐만 아니라 끄트모르는 경영정신으로 『절과 기계는 광업의 일이다!』라는 구호를 내놓으셨다.

그때를 둘러쳐보며 언제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수령님께서는 10여개밖에 안되면 때 맨주에 뿐만 아니라 끄트모르는 경영정신으로 『절과 기계는 광업의 일이다!』라는 구호를 내놓으셨다.

그때를 둘러쳐보며 언제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수령님께서는 10여개밖에 안되면 때 맨주에 뿐만 아니라 끄트모르는 경영정신으로 『절과 기계는 광업의 일이다!』라는 구호를 내놓으셨다.

그때를 둘러쳐보며 언제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수령님께서는 10여개밖에 안되면 때 맨주에 뿐만 아니라 끄트모르는 경영정신으로 『절과 기계는 광업의 일이다!』라는 구호를 내놓으셨다.

그때를 둘러쳐보며 언제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수령님께서는 10여개밖에 안되면 때 맨주에 뿐만 아니라 끄트모르는 경영정신으로 『절과 기계는 광업의 일이다!』라는 구호를 내놓으셨다.

그때를 둘러쳐보며 언제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수령님께서는 10여개밖에 안되면 때 맨주에 뿐만 아니라 끄트모르는 경영정신으로 『절과 기계는 광업의 일이다!』라는 구호를 내놓으셨다.

그때를 둘러쳐보며 언제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수령님께서는 10여개밖에 안되면 때 맨주에 뿐만 아니라 끄트모르는 경영정신으로 『절과 기계는 광업의 일이다!』라는 구호를 내놓으셨다.

그때를 둘러쳐보며 언제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수령님께서는 10여개밖에 안되면 때 맨주에 뿐만 아니라 끄트모르는 경영정신으로 『절과 기계는 광업의 일이다!』라는 구호를 내놓으셨다.

그때를 둘러쳐보며 언제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수령님께서는 10여개밖에 안되면 때 맨주에 뿐만 아니라 끄트모르는 경영정신으로 『절과 기계는 광업의 일이다!』라는 구호를 내놓으셨다.

그때를 둘러쳐보며 언제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수령님께서는 10여개밖에 안되면 때 맨주에 뿐만 아니라 끄트모르는 경영정신으로 『절과 기계는 광업의 일이다!』라는 구호를 내놓으셨다.

그때를 둘러쳐보며 언제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수령님께서는 10여개밖에 안되면 때 맨주에 뿐만 아니라 끄트모르는 경영정신으로 『절과 기계는 광업의 일이다!』라는 구호를 내놓으셨다.

그때를 둘러쳐보며 언제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수령님께서는 10여개밖에 안되면 때 맨주에 뿐만 아니라 끄트모르는 경영정신으로 『절과 기계는 광업의 일이다!』라는 구호를 내놓으셨다.

그때를 둘러쳐보며 언제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수령님께서는 10여개밖에 안되면 때 맨주에 뿐만 아니라 끄트모르는 경영정신으로 『절과 기계는 광업의 일이다!』라는 구호를 내놓으셨다.

그때를 둘러쳐보며 언제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수령님께서는 10여개밖에 안되면 때 맨주에 뿐만 아니라 끄트모르는 경영정신으로 『절과 기계는 광업의 일이다!』라는 구호를 내놓으셨다.

그때를 둘러쳐보며 언제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수령님께서는 10여개밖에 안되면 때 맨주에 뿐만 아니라 끄트모르는 경영정신으로 『절과 기계는 광업의 일이다!』라는 구호를 내놓으셨다.

우리의 핵 억제력은 평화 수호의 위력한 보검

그 누구도 넘볼수 없는 주체의 핵 강국, 세계적인 군사대국으로 급부상한 사회주의 조선이 이 행성의 중심에 우뚝 서서 그 위용을 만방에 펼치고 있다. 강력한 핵 억제력으로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굳건히 수호하고 있다. 정당한 자위적 조치들로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책동을 단호히 제압하고 있다.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 진보적인 인류는 경에 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의 신사를 통하여 주체 조선의 핵 무력성이야말로 평화수호의 강력한 보검이라는 것을 다시금 절감하고 있다.

경에 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국가의 핵무력은 미국의 어떤 핵위협도 분쇄하고 대응할 수 있으며 미국이 모험적인 불장난을 할수 없게 제압하는 강력한 억제력으로 립니다!』

침략과 전쟁이 없는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계에서 살려는 것은 인류의 네운이며 지향이다. 하지만 그것은 바란다. 하여 저절로 실현되지 않아 한다.

우리의 핵 억제력은 억만금과도 바꿀 수 없는 민족의 생명이며 우리 조국의 창창한 미래를 담보하는 만년초석이다. 우리가 이것을 풀어쥐고 있는 한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는 민족에 대한 핵무력을 확보하는 데 적극적으로 힘을 쏟아온다.

아무리 선량하고 정당하여도 힘이 없으면 나리의 자주권과 생존권은 물론 평화도 지킬 수 없게 된다.

지난 시기 외세의 힘을 빌어 평화를 보장해 보려고 한 날간반도와 중동지역의 일부 나라들이 바로 그렇게 되었다. 이 나라들은 대국들에 기대를 걸고 자체의 힘을 키울 생각을 하지 않았다. 어떤 나라는 대국들에 환상을 가지고 이미 있던 전쟁 억제력까지 포기하였다. 종당에는 침략의 희생물이 되어 전란을 벌였다.

지구촌에 평화의 원수들이 남아있는 한 강력한 전쟁억제력을 갖추지 못하면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수호할 수 있고 평화와 번영도 이룩할 수 없다는 것은 력사를 통하여 전증된 진리이다.

조선민족은 우리 국가를 위하여 세계 평화의 파괴자, 교란자인 미국이 모험적인 불장난을 할수 없게 하는 강력한 억제력이며 평화수호의 보검이다. 이것이 있기에 우리 국가를 힘으로 알살하고 세계체제야망을 실현하는 미국의 발악적책동을 물거품으로 만들어 놓았이다. 미국의 반공국 침략책동을 걸음마다 짓부시며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를 굳건히 수호하고 있다.

우리의 핵 억제력은 억만금과도 바꿀 수 없는 민족의 생명이며 우리 조국의 창창한 미래를 담보하는 만년초석이다. 우리가 이것을 풀어쥐고 있는 한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는 민족에 대한 핵무력을 확보하는 데 적극적으로 힘을 쏟아온다.

사실 우리 나라에 전쟁위험이 조성된 적은 한두번이 아니었다. 세계 최대의 열점지역인 조선반도에서는 세계체제를 꿈꾸는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의 핵전쟁책동으로 말미암아 당시적인 전쟁위험이 조성되어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엄중히 위협하였다.

지난해에도 미국은 핵항공포함파

핵잠수함, 핵전략폭격기, 스텔스전투기 등 숨진 전략자산들을 동원하여

핵전쟁연습을 끊임없이 벌려놓았다.

우리는 팔짱을 끼고 암살자에게 되었다.

조선민족은 우리 국가를 위하여 세계 평화의 파괴자, 교란자인 미국이 모험적인 불장난을 할수 없게 하는 강력한 억제력이며 평화수호의 보검이다. 이것이 있기에 우리 국가를 힘으로 알살하고 세계체제야망을 실현하는 미국의 발악적책동을 물거품으로 만들어 놓았이다. 미국의 반공국 침략책동을 걸음마다 짓부시며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를 굳건히 수호하고 있다.

우리의 핵 억제력은 억만금과도 바꿀 수 없는 민족의 생명이며 우리 조국의 창창한 미래를 담보하는 만년초석이다. 우리가 이것을 풀어쥐고 있는 한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는 민족에 대한 핵무력을 확보하는 데 적극적으로 힘을 쏟아온다.

하지만 미국은 여기에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핵전략폭격기 B-1B 전략폭격기 편대를 운송해 조선반도에 상공에 까지 들어밀어 우리에게 조선반도에 대로에 대한 핵공격을 감행할 수 있는 시위』를 벌렸다.

미국이 임의의 시각에 우리 국가에 대한 핵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는 것이 명백해 조선반도에 우리에게 조선반도에 대로에 대한 핵공격을 감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알수 없었다.

지상대 지상장거리 전략탄도로켓 트『화성-1 2형』, 지상대 지상장거리 전략탄도로켓『북국성-2』형을 비롯한 새형의 전략무기들의 시험발사를 헌이에 진행하였다. 7월에 들어서는 두차례의 대륙간탄도로켓『화성-1 4형』 시험발사를 했다. 9월에는 대륙간탄도로켓『화성-1 5형』 시험발사를 진행하였다.

미국은 정의의 힘으로 원천제거를 하지 않으면 조선반도와 지역의 공고한 평화를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 너무나도 명백해졌다.

우리는 전략적결단을 내리고 미국

부토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초대형중량급 핵무기들이 가능한 새형의 원

탄관대 탄도로켓『화성-1 5형』 시험발사를 진행하였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그 어떤 힘으로도, 그 무엇으로써도 되돌릴 수 없는 강력하고 일정적인 전쟁억제력을 보유하였다. 일일 천주로 바라보니 날려보낼 수 있는 강력한 핵운반수단까지 보유한 주체조선의 위력을 보여주었다.

비상히 강화된 우리의 자위적핵억

제력에 열흔이 나간 미국은 똑바른

타산과 전략도 없이 최후방악에 나

섰다. 트럼프가 유엔大会에서『조선

반통화』를 통해 원칙으로 탄핵

위협을 벌였다. 미군의 침략과 핵위협의 력

사에 종지부를 짚고 부강조국건설의

교환한 핵억제력을 조선반도뿐이

나라 통북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

전을 수호하는 위력한 보검이다.

미국본토전역이 우리 핵타격 사정권안에 들어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결코 위협이 아니라 엄연한 현실이다.

세기를 이어온 조미대결에서 우리 는 대승리를 거두었다. 결코 하늘이 준 우연이 아니다. 남들보다 조선이 좋으어서 마련된 것도 아니다.

사회주의 조선은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군사적위협과 제재봉쇄책동

이 그 어느 때보다 악랄하게 감행되는 속에서 자체의 힘으로 남들보다 엄두도 내지 못할 빛나는 승리를 이루하였다.

우리의 핵무력은 그 어떤 정치적 풍정물이나 경제적거제물이 아니다. 우리 공화국을 해로 압살해 보려고

미국의 본성은 예나 지금이나 조금

도 달라지지 않았다. 이것은 우리가 병진의 가치를 높이 들고 핵무력 강화의 길로 계속 나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평화수호의 강위력한 보검이 있기

에 우리는 조급도 두려운것이 없으

며 언제나 배심든든하다.

그 누가 뛰라고 하든 우리 군대와

인민은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책동이 계속되는 한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을 막아내고 사는 미국의 침략학동에

정의의 힘으로 맞선 우리의 전략적판단과 결단이 천만번 옮았다는 것

이 현실로 충증되었다.

우리의 핵 억제력은 조선반도뿐이

나라 세상에 없다.

미국은 아직도 우리의 핵포기 를 운운하며 제제와 봉쇄의 도수를 높이면서 우리가 다른 길을 태하면 살수 있다는 나발을 불어대고 있다.

우리 국가의 핵무력의 목적과 사명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무지의 극치이다.

조선반도와 지역의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고 우리 인민이 평화로운 환경속에서 세상에 부럽없는 행복한 생활을 누리게 하자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 핵무력의 사명이다.

우리의 핵무력은 그 어떤 정치적 풍정물이나 경제적거제물이 아니다.

우리 공화국을 해로 압살해 보려고

미국의 본성은 예나 지금이나 조금

도 달라지지 않았다. 이것은 우리가 병진의 가치를 높이 들고 핵무력 강화의 길로 계속 나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평화수호의 강위력한 보검이 있기

에 우리는 조급도 두려운것이 없으

며 언제나 배심든든하다.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하여 계획하고 우리 민족과 온 인류에게 핵침략을

막아내고 사는 미국의 침략학동에

정의의 힘으로 맞선 우리의 전략적판단과 결단이 천만번 옮았다는 것

이 현실로 충증되었다.

우리의 핵 억제력은 조선반도뿐이

나라 세상에 없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그 어떤 힘으로도, 그 무엇으로써도 되돌릴 수 없는 강력하고 일정적인 전쟁억제력을 보유하였다. 일일 천주로 바라보니 날려보낼 수 있는 강력한 핵운반수단까지 보유한 주체조선의 위력을 보여주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그 어떤 힘으로도, 그 무엇으로써도 되돌릴 수 없는 강력하고 일정적인 전쟁억제력을 보유하였다. 일일 천주로 바라보니 날려보낼 수 있는 강력한 핵운반수단까지 보유한 주체조선의 위력을 보여주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그 어떤 힘으로도, 그 무엇으로써도 되돌릴 수 없는 강력하고 일정적인 전쟁억제력을 보유하였다. 일일 천주로 바라보니 날려보낼 수 있는 강력한 핵운반수단까지 보유한 주체조선의 위력을 보여주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그 어떤 힘으로도, 그 무엇으로써도 되돌릴 수 없는 강력하고 일정적인 전쟁억제력을 보유하였다. 일일 천주로 바라보니 날려보낼 수 있는 강력한 핵운반수단까지 보유한 주체조선의 위력을 보여주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그 어떤 힘으로도, 그 무엇으로써도 되돌릴 수 없는 강력하고 일정적인 전쟁억제력을 보유하였다. 일일 천주로 바라보니 날려보낼 수 있는 강력한 핵운반수단까지 보유한 주체조선의 위력을 보여주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그 어떤 힘으로도, 그 무엇으로써도 되돌릴 수 없는 강력하고 일정적인 전쟁억제력을 보유하였다. 일일 천주로 바라보니 날려보낼 수 있는 강력한 핵운반수단까지 보유한 주체조선의 위력을 보여주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그 어떤 힘으로도, 그 무엇으로써도 되돌릴 수 없는 강력하고 일정적인 전쟁억제력을 보유하였다. 일일 천주로 바라보니 날려보낼 수 있는 강력한 핵운반수단까지 보유한 주체조선의 위력을 보여주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그 어떤 힘으로도, 그 무엇으로써도 되돌릴 수 없는 강력하고 일정적인 전쟁억제력을 보유하였다. 일일 천주로 바라보니 날려보낼 수 있는 강력한 핵운반수단까지 보유한 주체조선의 위력을 보여주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그 어떤 힘으로도, 그 무엇으로써도 되돌릴 수 없는 강력하고 일정적인 전쟁억제력을 보유하였다. 일일 천주로 바라보니 날려보낼 수 있는 강력한 핵운반수단까지 보유한 주체조선의 위력을 보여주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그 어떤 힘으로도, 그 무엇으로써도 되돌릴 수 없는 강력하고 일정적인 전쟁억제력을 보유하였다. 일일 천주로 바라보니 날려보낼 수 있는 강력한 핵운반수단까지 보유한 주체조선의 위력을 보여주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그 어떤 힘으로도, 그 무엇으로써도 되돌릴 수 없는 강력하고 일정적인 전쟁억제력을 보유하였다. 일일 천주로 바라보니 날려보낼 수 있는 강력한 핵운반수단까지 보유한 주체조선의 위력을 보여주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그 어떤 힘으로도, 그 무엇으로써도 되돌릴 수 없는 강력하고 일정적인 전쟁억제력을 보유하였다. 일일 천주로 바라보니 날려보낼 수 있는 강력한 핵운반수단까지 보유한 주체조선의 위력을 보여주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그 어떤 힘으로도, 그 무엇으로써도 되돌릴 수 없는 강력하고 일정적인 전쟁억제력을 보유하였다. 일일 천주로 바라보니 날려보낼 수 있는 강력한 핵운반수단까지 보유한 주체조선의 위력을 보여주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그 어떤 힘으로도, 그 무엇으로써도 되돌릴 수 없는 강력하고 일정적인 전쟁억제력을 보유하였다. 일일 천주로 바라보니 날려보낼 수 있는 강력한 핵운반수단까지 보유한 주체조선의 위력을 보여주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그 어떤 힘으로도, 그 무엇으로써도 되돌릴 수 없는 강력하고 일정적인 전쟁억제력을 보유하였다. 일일 천주로 바라보니 날려보낼 수 있는 강력한 핵운반수단까지 보유한 주체조선의 위력을 보여주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그 어떤 힘으로도, 그 무엇으로써도 되돌릴 수 없는 강력하고 일정적인 전쟁억제력을 보유하였다. 일일 천주로 바라보니 날려보낼 수 있는 강력한 핵운반수단까지 보유한 주체조선의 위력을 보여주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그 어떤 힘으로도, 그 무엇으로써도 되돌릴 수 없는 강력하고 일정적인 전쟁억제력을 보유하였다. 일일 천주로 바라보니 날려보낼 수 있는 강력한 핵운반수단까지 보유한 주체조선의 위력을 보여주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그 어떤 힘으로도, 그 무엇으로써도 되돌릴 수 없는 강력하고 일정적인 전쟁억제력을 보유하였다. 일일 천주로 바라보니 날려보낼 수 있는 강력한 핵운반수단까지 보유한 주체조선의 위력을 보여주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그 어떤 힘으로도, 그 무엇으로써도 되돌릴 수 없는 강력하고 일정적인 전쟁억제력을 보유하였다. 일일 천주로 바라보니 날려보낼 수 있는 강력한 핵운반수단까지 보유한 주체조선의 위력을 보여주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그 어떤 힘으로도, 그 무엇으로써도 되돌릴 수 없는 강력하고 일정적인 전쟁억제력을 보유하였다. 일일 천주로 바라보니 날려보낼 수 있는 강력한 핵운반수단까지 보유한 주체조선의 위력을 보여주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그 어떤 힘으로도, 그 무엇으로써도 되돌릴 수 없는 강력하고 일정적인 전쟁억제력을 보유하였다. 일일 천주로 바라보니 날려보낼 수 있는 강력한 핵운반수단까지 보유한 주체조선의 위력을 보여주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그 어떤 힘으로도, 그 무엇으로써도 되돌릴 수 없는 강력하고 일정적인 전쟁억제력을 보유하였다. 일일 천주로 바라보니 날려보낼 수 있는 강력한 핵운반수단까지 보유한 주체조선의 위력을 보여주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그 어떤 힘으로도, 그